

속을 차려야 밖으로 강해진다

—東南亞細亞를 다녀와서—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營業第一課長

鄭 泰 卿

「시멘트」誌 2月號에 실린 「시멘트 輸出과 東南亞市場」이란 題下의 論文에서 「이제부터 從來의 ‘앉아서 하는 장사’로 부터 ‘뛰어 나가서 하는 장사’로 販賣方式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必至의 事實이고 우리 業界도 今明間 東南亞市場에 關한 Field Survey를 實施할 것으로 생각 되거니와……」라고 言及하였던 筆者의 豫言이 的中되어 드디어 지난 4月 24日 筆者는 같은 課의 金士稷參事와 함께 東南亞市場調査次 海外出張의 길에 올랐다. 當初 함께 가기로 하여 모든 出國手續을 같이 밟았던 東洋시멘트의 朴鍾柱課長代理가 同會社의 形便에 의하여 同行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을 못내 섭섭해 하면서 우리나라 最初의 實務者級 시멘트海外市場調査班인 우리 두사람은 CAL航空機便으로 金浦空港을 出發 東南亞로 機首를 向했다.

1. 台灣(Taiwan)의 台北(Taipei)

우리의 旅程中에서 첫 寄着地는 台灣의 台北이었다. 台北空港에 첫발을 내디디자 화끈하는 더운 氣溫이 닥쳐와서 더운 地方에 왔다는 實感을 갖게 하였다.

台灣은 79個의 島嶼로 構成되어 있고 總面積은 35,965平方km에 達하며 그 首都인 台北市의 面積은 272平方km인데 台灣의 總面積이 中國總面積의 1%의 3분의 1이라고 台灣省政府刊行物에 明示되어 있다.

台灣은 山岳地帶를 除外하고는 거의 다 耕作되고 있는데 登錄된 土地는 13,941平方km로 總

面積의 38.9%를 示顯하고 그것의 34.1%가 直接 耕作面積이며 2.4%는 建物地이고 1.3%는 交通用地이며 1.1%는 公園, 水路, 江 등의 其他 用地이다.

台灣의 平地는 使用 飽和狀態에 이르렀고 非 使用地의 開發이 앞으로의 土地政策의 關鍵이 될 것이라고 한다.

台灣의 人口는 1946年末에 6,090,860이던것이 1968年末에는 13,650,370(台北市人口 1,604,534 包含)로 불어났다.

台灣經濟開發의 力點은 台灣省의 工業化促進에 두고 있다. 이 政策의 一環으로서 中華民國政府는 1953年以來 네번의 4個年經濟開發計劃을 執行한바 있다. 中國政府가 採擇한 重要方案은 ① 投資環境의 改善 ② 投資促進法의 制定 ③ 產業 및 商事關係 諸法規의 改正 ④ 產業 및 商事關係 諸節次의 簡素化이다.

1946년에는 台灣의 登錄工場數가 6,235였는데 現在 29,570이며 輕工業과 化學工業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1952年度의 台灣의 工產品輸出實績은 美貨4,328,000弗이었는데 1967년에는 3億4千萬弗에 이르렀으므로 15年間に 78倍의 工產品輸出伸張率을 示顯하였다.

台灣의 工業中에서 시멘트工業이 相當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現況을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越南市場에의 시멘트輸出에 있어서 台灣은 韓國의 가장 強力한 競爭國이므로 그들의 輸出現況, 有利點, 問題點등을 알아 보는 것이 우리의

臺灣水泥工業現況

會社名稱	商標	工場名	窯數	製造方式	窯別日間生產能力(%)	年間生產能力(%)	
臺灣水泥股份有限公司	品牌	高雄廠	5	乾式	#1	310	83,700
				乾式	#2	400	118,700
				乾式	#3	500	151,600
				Lepol	#4	700	265,000
				Suspension preheater system		1,350	428,000
		蘇澳廠	3	乾式	#1	400	160,400
				乾式	#2	330	129,600
				Suspension Preheater System	#3	900	300,000
		竹東廠	2	Lepol	#1	310	115,500
				Lepol	#2	370	167,500
花蓮廠	1	Lepol	#1	180	80,000		
亞洲水泥股份有限公司	洋房牌	亞洲水泥有限公司製造廠	3	Lepol 2 Suspension Preheater System	435 1,200	850,000	
環球水泥股份有限公司	環球牌 雙龍牌	大湖廠	2	Lepol	#1	650	550,000
					#2	950	
嘉新水泥股份有限公司	五洲牌	岡山廠	2	半乾式	各	800	540,000
東南水泥股份有限公司	東南牌	高雄廠	3	Lepol	#1	80	360,000
					#2	220	
					#3	700	
建臺水泥股份有限公司	雙象牌 泰山牌	高雄廠	2	乾式		1,200	380,000
						50	
正泰水泥股份有限公司	金錢牌	正泰水泥廠	1	Suspension Preheater System		1,500	500,000
永康工業開發股份有限公司	皇冠牌	永康工業開發公司水泥廠	1	乾式		150	55,000
啓信實業股份有限公司	鷹牌	啓信公司楊梅工廠 啓信公司臺北工廠 (白水泥)	1	乾式		45	16,200
						24	
東亞水泥股份有限公司	三和牌	龜山廠	1	乾式		50	18,000
合計							5,269,200 8,640 (白水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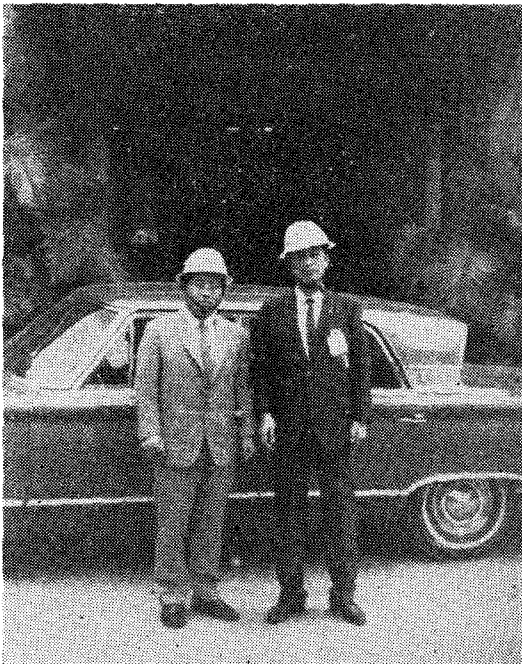
資料：臺灣區水泥工業同業公會編 臺灣水泥工業概況

最大關心事였기에 台北에 到着하는 대로 中山北路에 있는 台灣最大의 시멘트 메이커인 台灣水泥公司本社를 訪問하여 常務董事 林燈氏 國外部經理(外國部長)沃樹炎氏를 만나서 兩國同業界人士들의 近況(雙龍洋灰申鉉禧社長就任, 東海電力金鍾大社長就任, 洋灰工業協會金益烈會長就任 및 辜振甫台灣시멘트社長の 오스트랄리아 國際會議 參加次出張件 등) 消息을 나누고 兩同業界의 生産, 出荷, 輸送, 販賣面의 現況 및 問題點을 討議하였으며 兩同業界의 繼續的 友誼增進을 約束하였다.

林燈氏는 우리 業界의 消息을 들던중 約6年間 洋灰協會를 이끌어 왔던 金鍾大前會長의 功勞를 높이 致賀하면서 建軍의 功勞者이기도 한 新任 洋灰協會會長 金益烈將軍의 새로운 役割에 期待를 건다고 말하고 雙龍의 申鉉禧社長께 鄭重한 人事를 傳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國外部經理室로 내려가서 台灣시멘트 中間管理層과 懇談會를 가졌는데 여기에 參席한 相對方 사람은 沃樹炎外國部長, 甘霖外國部次長, 蕭明山輸出課長, 陳卿賢軍納係長이었다.

그들에게 들은 台灣시멘트業界의 現況을 대강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臺灣시멘트會社 高雄工場 事務室앞에 선 筆者(右)와 金士稷參事(左)

(1) 國內現況

① 台灣의 國內建築 및 土木景氣가 좋아서 國內시멘트需要는 急激히 增大하고 있으므로 시멘트는 好景氣를 謳歌하고 있다.

② 台灣의 시멘트都賣價格은 工場渡(Ex-plant price)나 消費地驛渡나 倉庫渡나 共히 같은 價格인데 屯當 台灣 NT \$960(美貨 24弗)로 좋은 價格이다. 倉庫渡는 出庫上車등 荷役段階가 조금 길기 때문에 消費者들은 驛渡로 가져가기를 좋아 한다.

③ 都賣商(特約店)의 Margin은 2%에 不過하고 上記 都賣價格에 包含되어 있다.

④ 台灣의 國內用시멘트包裝은 袋當 50kg入으로 하고 있으며 國內用包裝紙袋는 3重紙袋이다.

⑤ 台灣은 國內시멘트輸送難이 전혀 없는데 이는 시멘트工場들이 대개 消費中心地인 都市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다.

輸送은 鐵道로 50%, 추력으로 50%하고 있으며 鐵道貨車의 確保란 대단히 容易한 立場에 있다. 中國政府는 시멘트工業을 重視하고 貨車配定에는 전적으로 優先順位를 주고 있다.

(2) 輸 出

① 台灣의 輸出用시멘트의 船積港이 台灣의 南端에 位置한 高雄이기 때문에 東南亞市場과 距離上 가깝다.

② 台灣最大이며 東南亞最大시멘트 工場인 台灣水泥公司 高雄廠을 비롯하여 東南水泥公司 및 建台水泥公司의 工場이 輸出港인 高雄市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輸出시멘트의 國內輸出問題가 없으며 適期船積이 容易하다.

③ 高雄港은 豊富한 中國船舶의 母港이고 빈번한 外國船舶의 寄港地이기 때문에 傭船하는데는 전혀 隘路가 없다.

(3) 國內軍納

① 韓國과는 달리 國內對美軍 軍納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② 中國軍에 대한 軍納은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中國軍의 추력 및 추렐이러에 依하여 工場에서 出荷되고 있다. 即 引渡方法은 거의 다 工場上車渡이다.

③ 國內軍納用시멘트紙袋도 50kg入 3重紙袋이다.

④ 國內軍納價格은 國內民需品價格보다 훨씬低廉한 奉仕價格이다.

(4) 對越南 팔레트包裝 軍納

① 1968年度 TFOR를 통한 對越南 팔레트包裝軍納實績은 美貨 300萬弗 이었다.

② 1969年度에 들어와서는 對越南軍納의 新規契約은 全無하고 作年度契約分의 移越量을 出荷하고 있다.

③ 팔레트包裝場所는 高雄의 시멘트工場構內에서 하고 埠頭까지는 車 및 車輪이러로 실어내고 있다.

④ 팔레트包裝作業은 下請業者에게 맡기지 않고 시멘트工場에서 直營한다.

⑤ 팔레트包裝勞賃은 시멘트屯當 美貨 1.70弗程度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⑥ 50kg入 시멘트 40袋積載의 Steel Pallet作業時 1日 8時間에 約 400個 製作한다.

⑦ 對越南시멘트軍納價格은 國內民需시멘트價格보다 훨씬 下廻하고 있다.

⑧ 對越南軍納用시멘트의 包裝紙袋는 亂袋防止를 위하여 6ply 乃至 7ply 紙袋를 使用하고 있다.

⑨ Steel Pallet는 個當 美貨 6弗로 購入하고 있다.

⑩ TFOR의 檢收官(Inspector)이 까다로운 것은 韓國과 비슷한 點이다.

台灣水泥公司에서 相互 인휘메이션交換을 마친 뒤에 同社 펠딩內에 있는 台灣區水泥工業同業公會(台灣洋灰 工業協會)를 訪問하여 韓國에 數年前에 來訪한 일이 있는 同業務委員會執行秘書(Executive Secretary, Business Committee) 鄭家祐氏를 만나 歡談을 하였다. 그가 來韓했을 때는 筆者를 보고 「500年前에는 같은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더니 이번에는 「100年前에는 같은 할아버지」로 그 소급 期間이 短縮되었다고 「조크」를 하면서 破顔大笑를 하는 것이었다.

台灣最大펠딩을 자랑하는 嘉新水泥公司를 訪問하고 韓國에 여러차례 왔던 同業務兼 外國部長인 洪星程氏를 만나서 옛 情을 나누기도 하였다.

저녁에는 台灣시멘트工業界가 모두 모인듯 各社部長들을 「호스트」로 한 우리들의 歡迎晚餐이 있어서 푸짐한 大陸式 歡待를 받으며 兩國시멘트界의 友誼를 돈독히 하였다. 韓國式 歡盃方式을 採擇, 우리 두 사람이 中國 사람 얼을 당해내어 韓國人의 莫強한 體力를 誇示한 것은 特記할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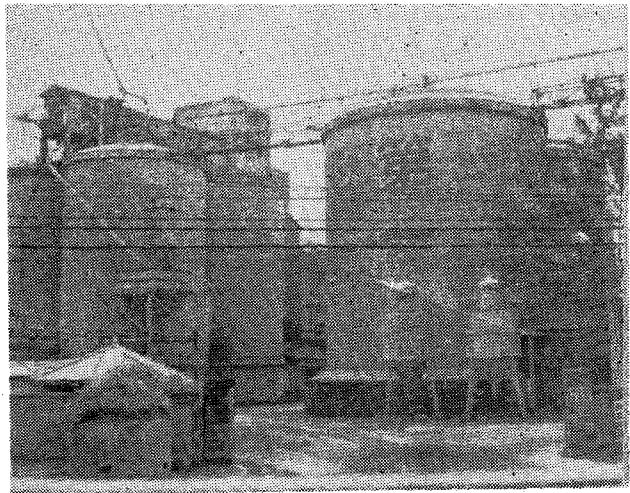
2. 台灣의 高雄(Kaohsiung)

4月 25日에는 台北驛에서 特急列車便으로 高雄으로 向하여 台灣을 南北으로 橫斷 走行하였다.

台中台南을 거쳐 南行하면서 別관마다 보이는 논은 우리나라의 논과 다를 것이 없었으나 곳곳에 보이는 빠나나 나무숲만은 신기한 것이었다.

高雄市에서는 「携手創造 邁向繁榮」(Forward Together For Progress)이라는 主題아래 國際青年商工會議所(Junior Chamber International) 高雄會議가 盛大히 열렸었다.

參加國은 主催國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 日本, 美國, 濠洲,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爪



臺灣시멘트會社 高雄工場의 시멘트貯藏싸이로 앞에 보이는 것이 벌크시멘트 판매시 대어 해주는 싸비스 싸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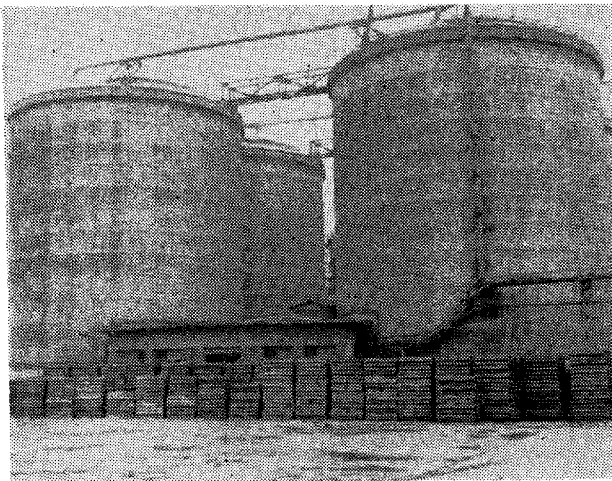
마, 比律賓, 홍콩, 越南, 湄, 오끼나와, 카나다, 세일론, 부루네이, 자마이카, 印度, 라오스 등 20餘國이었다.

中華民國嚴家淦副總統은 各國首席代表들을 接見하였는데 筆者도 韓國首席代表의 資格으로 嚴副總統을 만나 握手을 나누는 榮光을 가졌다.

高雄에 있는 中國石油公社講堂에서 열린 開會式에는 各國首席代表가 呼名에 따라 각기 제나라 國旗를 앞세우고 雨雷와 같은 拍手와 歡迎속에 立場하여 壇上에 자리를 잡은 뒤에 그날의 「톱·게스트」인 中國嚴副總統이 臨席하므로서 盛大한 幕을 올렸었다.

中國嚴副總統이 緊張되어 가는 國際情勢下에서 世界平和와 繁榮을 위해서는 보다 더 鞏固한 國際紐帶와 協力關係가 必要하다고 力說한 유창한 英語에 의한 演說은 많은 感銘을 주었다.

開會式豫行演習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여기에 紹介하여야겠다. 國旗의 先導下에 各國首席代表가 開會式場에 入場하는 練習을 하려고 보니 우리나라 國旗가 눈에 띄이지 않았다. 唯獨 太極旗가 빠진데 對하여 분개한 筆者는 中國側에다 「그대들은 가장 友好的인 나라를 잊어버렸다」고 一喝하였더니 中國側準備委員長이 쫓아와서 百拜謝過하면서 開會式에는 틀림없이 대도록 사람을 보냈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開



高雄시멘트工場 構內에 쌓여 있는 Wooden Pallet 여기서 팔레트包裝作業을 工場直營으로 한다.

會式始作直前에야 太極旗가 到着되어 筆者는 우리의 國旗를 앞세우고 左右前後의 歡呼聲에 손을 번쩍 들어 答禮하면서 入場할 수 있었다. 筆者가 強調했던 「Most Friendly Country」라는 것을 中國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亞細亞各國會長會議에서 各國의 雇傭問題를 討議할때 比律賓은 심각한 失業問題가 있다고 하고 日本은 完全 雇傭이라고 氣高萬丈하는 것을 보았다.

筆者는 「韓國은 最近 雇傭問題가 急速度로 改善되어 가고 있다. 各種產業發展은 且置하고라도 우리는 國內에 방대한 國軍을 保有하고 있고 越南에 5萬以上の 國軍과 3萬以上の 民間技術要員을 파견하고 있는 特殊事情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說明하면서 은근히 越南派兵에 의한 우리의 새로운 位置를 誇示하였다.

美國 및 越南代表와 越南問題를 討議할 때 越南代表가 「최소한 한국과 같은 安定을 우선 얻는 것이 所望이다. 越南의 統一問題는 別個의 차후 問題이다. 파리 會談이 越南에 不利한 結論을 지을까바 걱정이다.」 하질래

筆者는 「우리도 파리會談에서의 Unsatisfactory Settlement 가 되는 것을 願치 않는다. 만약에 Unsatisfactory Settlement 가 되는 경우 우리 國軍은 越南에서 撤收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派兵은 시킬수 있어도 撤軍은 마음대로 시킬수 없을것이다」하였더니 美國代表도 一理 있다하고 越南代表는 그저 고맙다고, 筆者가 무슨 큰 決定權者나 되는줄 아는지 謝意를 거듭 表하는 것이었다.

Opening General Assembly에서 筆者는 書面報告書는 제쳐 놓고 即興演說로 「東海上에서의 美國海軍「푸에블로」號拉致 및 偵察機격추사건 이래 韓國에는 侵略行爲粉碎를 위한 緊張度가 높아 가고 있어서 韓國의 靑年들은 鄉土 豫備軍에 參與하고 있으며 낮에는 生業에 從事하고 밤에는 訓練 및 防衛任務에 臨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韓國靑年商工人들은 이러한 國家現實속에서 政府의 施策에 呼應하여 나라를 돕는 것을 課題로

하고 젊은이들의 노력을 여기에 傾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高雄港務局禮堂에서는 台灣省長黃杰將軍의 招待午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黃省長은 韓國을 亞細亞에서의 反共國家로 첫손을 꼽으면서 反共戰線의 強化를 力說하는 것이었다.

高雄會議의 8個分科會議中の 하나였던 會員擴充分科會議의 議長으로 筆者가 會議를 主宰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 濠洲出身世界副會長 Orme 印度出身 Karanjia 理事 및 筆者의 公式秘書로 指名되었던 比律賓出身 변호사 Frontera의 協調가 없었던들 成功的인 會議主宰는 어려웠을 것이다.

高雄에서 台灣最大시멘트工場인 高雄工場을 林才華, 張鳳誥 두 副工場長의 案內로 見學하였는데 舊式生産施設(1917年度에 創設. 1970年代初에는 撤去할 計劃이라고함)과 새로운 Suspension Preheater System 施設을 併有하고 있는 點으로 우리나라의 東洋시멘트 三陟工場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高雄工場의 原料는 石灰石(Lime Stone)이 아니라 石灰粉末(Lime Marl)이라는데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며 우리나라 시멘트工場의 原料보다 못하다는 것은 認定하고 있다.

특히 雙龍東海工場의 施設 및 그 能力에 對해서는 高雄工場副工場長들이 筆者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노트에 소상히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東南亞 및 台灣最大의 키른과 豫熱室이라고 中國이 자랑하는 高雄工場의 키른 이 筆者가 보기에도 참으로 寬고 豫熱室이 굉장히 높다고 감탄하였더니 同工場副工場長이 그래도 이것이 雙龍東海工場것보다는 가늘고 낮은 것이라고 귀띔 해주어서 웃음을 禁치 못했다.

台灣시멘트會社의 組織圖(Organization Chart)를 여기에 紹介하여 參考에 資하고저 한다.

台灣시멘트業界를 둘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不利點

① 台灣의 시멘트工場은 우리나라 보다 舊式이고 小規模이다.

② 原料面에서도 台灣시멘트工業界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못하다.

○ 有利點

① 시멘트工業의 立地가 消費地에 있어 內國 輸送難이 없다.

② 輸出港이 台灣南端의 高雄이라 東南市場과 거리가 가깝고 備船이 容易하며 海上運賃이 적게 먹힌다.

○ 長 點

① 工場運營 販賣活動, 會社經營面에서 台灣이 優秀하다. 즉 運營을 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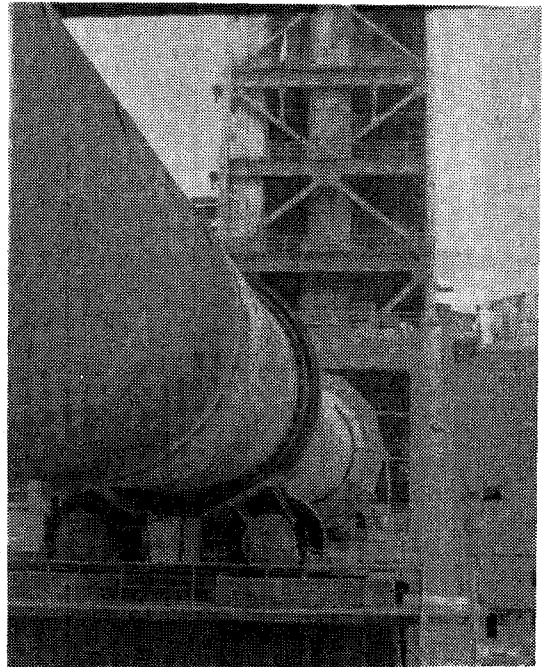
② 自己資本比率이 높고 特約店의 「마진」이 僅少하며 販賣活動에 있어서 強力한 「리더쉽」을 메이커가 가지고 있다.

○ 韓國業界가 力點을 두어야 할 일

① 海上輸送費를 加重케 하는 前近代의 荷役方式을 撤廢하고 現代의 荷役施設을 設置하고, 콘베야式 作業을 活用도록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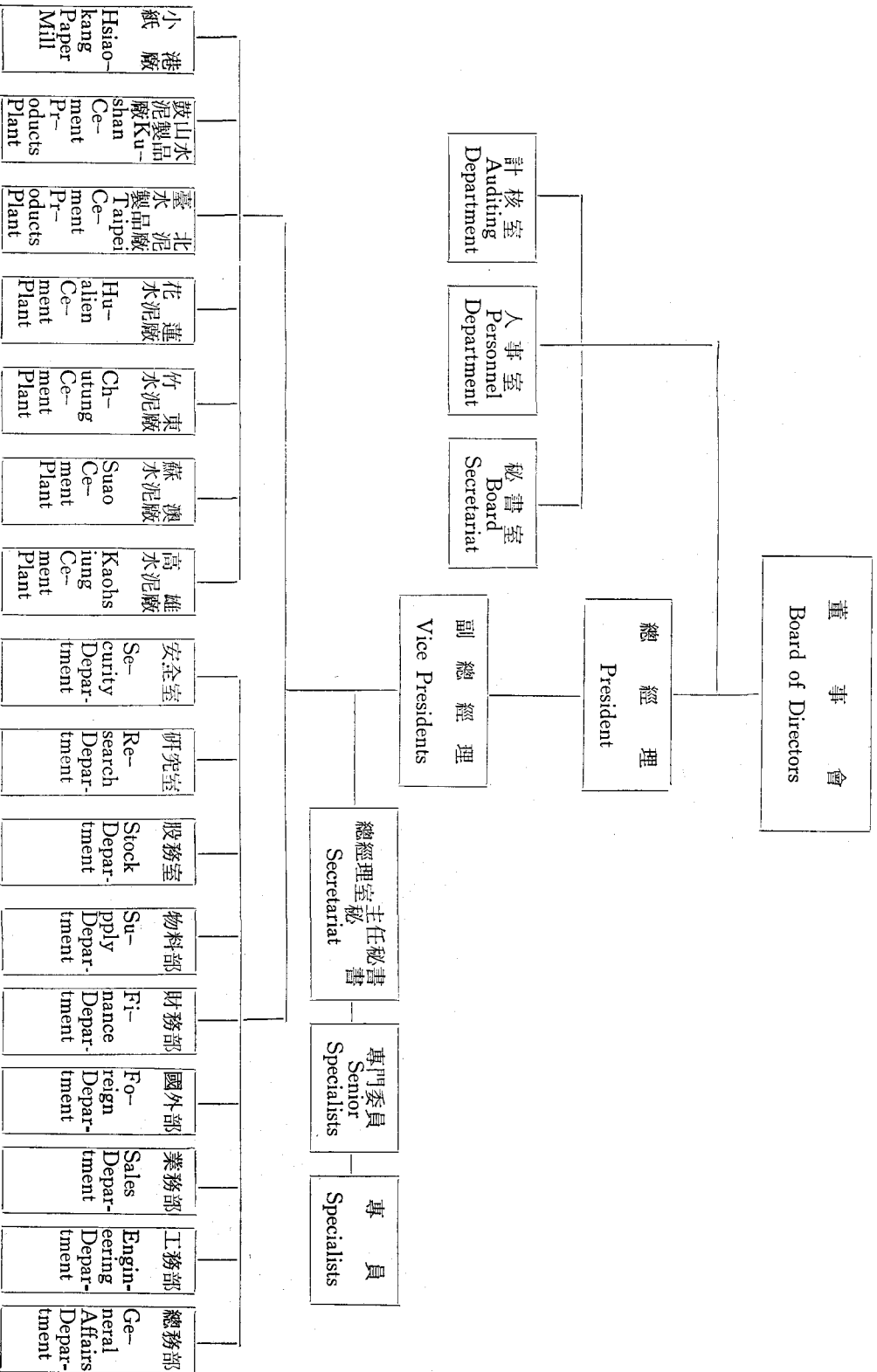
② 自己資本擴充을 期하고 販賣活動에 있어서 強力한 「이니시야티브」를 구사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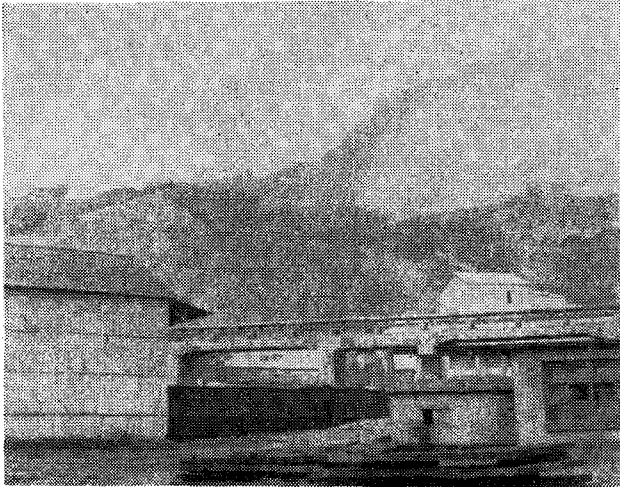
③ 內陸輸送을 鐵道貨車에만 依存하지 말고 高速道路擴張에 따라 大型추켈이러의 活用을 期할 것(시멘트輸送會社의 設立이 必要하다고 봄)



이것이 東南亞 및 台灣에서 最大라는 키른과 豫熱室이다. 우리나라 東海工場의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고 中國技術者들이 說明해준 것이다.

組 職 系 統 (ORGANIZATION)





高雄시멘트工場の 石灰石礦 Stone이 아니라 Marl(粉末)이다.

3. 香 港

香港에 到着하여 제일 먼저 우리가 찾은 것이 韓國領事館이었다. 空港이 있는 九龍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韓國領事館이 있는 香港地域에 갈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덜어 놓고 택시 運轉手에게 韓國領事館으로 가자고 하였더니 택시짜 배를 타고 건너는데 香港弗로 40弗(美弗과 6:1)을 내라던가? 그러면 Ferry까지만 가자고 하여 25센트로 一等船室에 타고 香港地域에 건너 갔다. 香港地域택시 運轉手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드라이브만 하다가 겨우 領事館을 찾아 들어가니 趙領事가 반가히 맞아주며 宿所까지 잡아 주었다.

여기에서 通商擔當 副領事李連洙氏를 만나 흥

香港의 시멘트 輸入實績(1968年度)

수 입 국	수입량(CWT)	금액(HK \$)
이 태 리	21	1,410
英 國	1,681	132,140
臺 灣	1,217,559	4,898,730
日 本	1,411,230	6,837,135
中 共	3,213,252	12,427,146
濠 洲	1,425	65,500
計	5,845,168	24,362,061

註 : 1 CWT=112 Lbs

資料 : Hong Kong Trade Statistics

공의 (시멘트市場性)을 알아 보았다. 홍콩은 1968年度에 시멘트 約 30萬噸(美貨 400萬弗)을 輸入한 實績이 있었다.

홍콩은 中共으로부터 가장 많이 시멘트를 輸入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日本臺灣의 順序였다.

홍콩은 空地가 없는 密集都市이므로 貯藏能力不足으로 시멘트의 大量導入은 不可能하며 中共의 廣東으로 부터 「바-지」로 運搬可能하고 發注後 2日內면 工事現場에 까지 引渡可能하기 때문에 시멘트의 對香港輸出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結論을 얻었다.

領事館의 紹介로 中國人有力會社인 錦德有限公司(KAMTEX INTERNATIONAL LTD.) 社長 甘光仁(Kan Kwong Yan)을 만나서 韓國產시멘트의 輸出可能性與否를 打診하였던바 中共產이 工事現場渡로 噸當 美貨 15弗이므로 韓國產시멘트는 C&F 香港 噸當 13弗以下가 아니면 살수 없겠다고 하면서 韓國政府의 特단의 支援없이는 對香港輸出은 不可能할것이라고 斷定을 내리는 것이었다.

KOTRA 香港貿易館 韓相璇副館長을 만나 그의 집에서 모처럼 韓式저녁을 들면서 香港市場現況을 들었고 外換銀行香港支店의 沈載錫代理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보았으나 對香港시멘트 輸出展望은 투명해지지 않았다.

4. 사이곤.(Saigon)

CPA便으로 사이곤의 탄손누트空港에 내렸으나 香港 KOTRA에서 사이곤 KOTRA로 쳐준 電文이 遲滯되어 金星 產業사이곤事務所長이나 三星物產사이곤支店長의 마중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탄손누트空港안에 있는 駐越韓國軍 空軍支援團이 내어 준 세단 車로 同團本部를 訪問하여 團長崔奎淳大領, 飛行隊長 金永集中領以下 全參謀들과 懇談을 가졌는데 여기서 韓國產 시멘트의 包裝紙袋가 너무 나빠서 亂袋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들었으며 故國에 돌아 가거던 包裝改善에 努力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空軍支援團의 趙晨煥少領의 案内로 사이곤 市

內에 들어가 TAX 벨팅에 있는 KOTRA 사이곤貿易館을 찾았으나 南方特有的 「시아스타·타임」이라 들어 가지 못하고 뜨거운 暴陽아래의 사이곤市內를 둘러본뒤 ASTOR HOTEL에서 金星産業 사이곤 事務所長 李鎬廷氏, 三星物産 사이곤 支店長 李承英君, KOTRA 사이곤 貿易館副館長등을 만나서 시멘트 對越南輸出問題를 論議하였다.

사이곤市內는 낮에는 爆音を 많이 내는 오토바이 洪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밤이면 砲聲이 울려와서 韓國動亂을 겪은 韓國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은 外國人들에게는 恐怖의 밤이 될 그러한 晝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곤에는 市場性을 測定할 좋은 資料도 輸出展望을 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統計도 없었다.

그저 언제 얼마만큼의 入札이 있으리라는 風聞이 나돌고 그러다가 入札이 나오면 應札하는 그러한 나라이다.

1969年度の 越南의 시멘트輸入需要를 보면 다음 表와 같이 約 100萬噸에 이르고 있다.

1969年度 越南시멘트 輸入豫定量

越南政府一般用導入	300,000%
美軍建設關係(RMK)	500,000%
建設業者	100,000%
그外	100,000%
計	1,000,000%

뜨거운 氣溫때문에 그런지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Agressive하게 어딜 찾아 다니는 것이 질색이다. 韓國大使館의 金佐謙公使를 만나보고 싶은데 案內를 해달라니 그분이 도리어 귀찮아 할것이니 가볼 必要가 없다고 하고 越南現地 商社들중 찾아가 보자하면 確實한 去來關係도 成立안되어 있으니 가볼 必要가 없다고 하며 埠頭에 좀 나가 보자하면 最近 시멘트 온것이 없으니 가볼 必要없다고 하는 것이 었다.

그리하여 現地駐在人的 案內없이 우리끼리 사이곤郊外 「롱빈」에 있는 크링카 粉碎工場에도 나가 보았고 埠頭에도 나가 보았다. 制限區域인 美軍의 警備憲兵에게 「우리는 KOREA에서 왔는데 揚荷光景을 보자」고 하여 承認을 받은 뒤

에 (越南에서는 KOREA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制限區域에 가도 OK이다) 數km의 埠頭를 걸으면서 살살이 살펴보아도 國產品은 하나도 없고 모두 日製商品뿐이 었다. 여기서도 「피는 韓國이 흘리고 돈은 日本이 번다」는 기막힌 事實을 목도하였다. 越南에 終戰이 오면 越南景氣는 한 풀죽을 것이 뻔하니 때는 이미 늦었다는 感이 있으나 政府는 越南에서 우리가 經濟的 實利를 차지 할 수 있도록 「BUY KOREAN」을 強力한 對美交涉에서 하루 빨리 保障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속은 차리지 못하였으면서도 밖으로 껍 강해진 줄 自我陶醉가 되었던 것 같다.

經濟的 實利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밖으로는 盟主라도 된듯 뽐낼수 있을까?

속차리지 못하고 強者然하는 것은 虛勢에 不遇한 것이다.

越南에 輸出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멘트만 하더라도 臺灣產이나 日本產 보다 더 優秀하면 優秀했지 못하지 않다.

그러면 왜 輸出增進이 圓滑치 않은가? 시멘트 輸出의 隘路(Bottleneck)가 合當한 船賃에 의한 배를 求할수 없다는 것임을 政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船運賃의 배를 求하자니 선듯 備船에 應하지들 않고 남은 배나 겨우 늦게 잡히어 船積이 늦어지고 滯船이 걸리며 引渡期日이 넘어서 遲滯價金(Penalty)이나 물게 되는 이 事實을.....

工產品중 外貨稼得率最高인 시멘트의 輸出增進을 위해서 배잡는 걱정 하나 없애주지 못하는가? 일찍이 政府가 補助하는 韓·越往復專用船들이 確保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는 韓國이 東南亞市場과 멀리 떨어져 있는 地理的條件에 基因되는 問題이므로 企業家의 努力으로 打開될 隘路가 아니며 政府가 解決해 주어야 할 「보틀·넥크」이다.

筆者는 Air France 便으로 사이곤을 出發, 마닐라, 東京經由(國際見本市觀覽) 서울로 돌아오는 機上에서 以上과 같은 시멘트 輸出增進策構想에 골몰하면서 走馬看山式的 12日間의 東南亞出張을 決算해 보는 것이었다.